日음악가들 "공연장소, 법당이 최고"

특유 목재구조가 음향 살리는 데 영향

박정현 객원기자

일본 음악가들 사이에 불교 사원에서 공연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월 28일 보도했다. 공연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불교 사원 특유의 목재 구조가 우수한 음향 상태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직접 나서 영적 지도를 제공하면서 공연에 흥을 더한다고 한다. 젊은 신도들이 사원에 방문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환경에서 공연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비단 일본 음악가들뿐만이 아니다"며 1994년 밥 딜런이 나라현에 위치한 토다이지사원에서 장엄한 배경 아래 공연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지난해 5월 22일 오카야마 시내에 위치한 3세기 전 건축된 사원, 린자이에서 펼쳐진 공연을 소개했다. 당시 피아니스트 하야시 마사키(Hayashi Masaki, 40)의 공연과 함께 악기용 톱 연주가 하지메 사키타(Hajime Sakita, 47)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톱 소리는 사원 구조 덕분에 더욱 구슬프고 부드러웠다는 설명이다.

린자이 사원의 15대 주지인 신유 시노하라(54) 스님은 음향 콘솔을 직접 작동시킨다. 그는 1999년 사원에서 음악공연과 다른 행사들을 본격적으로 열기 전에 음향학을 배우기도 했다. 시노하라 스님은 "토성 벽은 소리를 잘 흡수한다"며 "목재 구조물은 건조해서 소리를 더 잘 퍼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나는 사원이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길 바란다. 음악공연도 그러한 이유로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아니스트 · 톱 연주가 등
사찰 음향환경에 매료돼
음향 공부하는 스님 늘어
"젊은이 위한 공간 탈바꿈"

해당 절에서 공연을 열었던 한 연주가는 아사히신문에 "이전에 연주한 어떤 곳보다 더 훌륭하다. 사원의 음향 환경에 감탄할 지경"이라고 치켜세웠다.

오카야마현에 위치한 진언종(神華宗) 사찰인 호케지(秋吉)도 2016년부터 연 3회 공연을 정례화했다. 이는 지역 아동들이 진정한 음악과 불교를 느낄 수 있도록 주지 조세이 세키토(Josei Sekito, 47) 스님이 시작했다. 스님은 음악가인 한 신도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공연을 열었고, 공연 장소와 시설에 만족한 음악가가 다른 음악가들을 초청하며 이후 공연들이 지속 개최됐다.


피아니스트 하야시 마사키가 지난해 5월 22일 린자이 사원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음악과 불교 간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세키토 스님은 "음악과 종교는 마음이 아플 때 사람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 감정이 흔들리는 이에게 중도를 찾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음악가들은 사원에서 공연하는 것에 매료될 정도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 스님은 "나는 사원의 분위기와 장소의 독창성 때문에 음악가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원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듣기에도 적합하다"고 전했다.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조센지 사원의 주지인 신쇼 유키하마(Shinsho Yukiyama, 45) 스님은 "나무가 소리의 파동을 잘 흡수하고 높은 천고로 인해 공간 전체에 소리가 퍼진다"며 "이것이 사원 내부에서 음악이 공명하고 입체적으로 들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키하마 스님은 공연에 앞서 5분간 사원의 역사와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

유키하마 스님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사원에 온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모임 장소이자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나는 음악을 통해 낡은 불교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불교 탄압 거세지는 중국

복지수당 지급정지, 출가자 폄하 연극까지

가난한 티베트인 생존 위협
"지극히 정치적인 탄압 해석"

최근 중국정부가 '중국화'라는 명목으로 불교를 비롯한 중국내 종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중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규제가 이제는 탄압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비터 윈터'는 익명을 요구한 티베트인들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비터 윈터'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티베트인들에게 "종교 활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최저생활 복지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명령을 공고했다고 전했다. 이 새로운 명령으로 인해 지난 십수 년간 진행돼 온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규제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티베트 자치구 라싸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티베트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대규모로 몰수했다. 그 결과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최저복지수당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다"며 "복지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가난한 티베트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역시 라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티베트인들을 감시하는 관리자가 임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복지수당 수급자로서 종교생활을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은 "매일 광장에 탑돌이를 가거나 절에 가는 것을 소일거리로 친구들을 만나곤 했다. 명령이 공지된 이후론 매일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전부"라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선업도 쌓지 못하고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고 슬픈 기색을 보였다.

인터뷰에 응한 한 티베트인 남성은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선 불교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에 따르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며 "불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선행을 하라 가르친다. 왜 이런 무해한 가르침에 탄압을 가하는가?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출가자를 폄하하는 대중공연을 상연했다는 뉴스도 전해졌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吉林省) 바이산시(白山市)에 거주하는 정보통은 "공안국이 주도해 출가자를 폄하하는 대중공연을 상연했다"고 전했다. 중국 동북부는 티베트불교를 믿어온 만주족의 거점지역으로 티베트불교 사찰들이 다수 존재한다.

정보통의 설명에 따르면 무직의 시민을 고용해 출가자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역할을 배역하고, 공안이 티베트 승복을 입고 승려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공연에 참가한 시민에겐 하루 150위안이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정보통은 "공연장 옆에는 무장경찰이나 공안국 간부 등이 배석, 순찰차의 확성기로 공연 내용을 전파했다. 주차된 차들 가운데는 '돈을 돌려 달라'는 등의 문구를 선전하는 차들도 있어 마치 공연이 아닌 실제상황처럼 꾸며졌다"며 공연임을 모르는 시민들이 보기엔 불교와 출가자들에게 대한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티베트 불교계의 주요 전통인 환생자 제도나 법계제도를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불교계의 고유한 부분까지 규제 대상에 넣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서 무연고자 납골시설 정비

日 오덴인, 크라우드 펀딩 통해 비용 마련

무연고자나 고독사 등 소외된 채 세상을 떠난 이들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한 사찰에서 이러한 이들을 위한 전용 장례시설 정비해 화제다. 지난달 26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오사카에 소재한 사찰, '오덴인(應典院)'의 미담을 특별 보도했다.

오덴인은 오사카에 소재한 정토종 사찰 다이렌지(大蓮寺)의 암자로 약 400년 전에 세워진 고찰이다. 오덴인은 그동안 장례식이나 천도재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 대한 문화사업과 교육사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주지인 아키타 미츠히코(63) 스님은 최근 오사카시에서 무연고자나 유족이 인수를 거부한 시신이 증가, 지난해에는 2,366인의 유골이 시립묘지에 합사됐다는 뉴스를 접한 후 "사찰과 시민이 협력해, 새로운 장례문화를 모색하고 싶다"는 마음을 냈다고 말했다.

아키타 스님은 오덴인이 그동안 쌓아온 시민과의 협동 노하우와 본사 다이렌지의 종교 활동을 융합해 무연고자들을 위한 장례를 연구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다이렌지 경내의 휴식소 겸 납골당을 개축,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전용 장례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개축에 드는 비용은 2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한다. 또 장례절차와 시설사용 등 세부적인 부분은 의료계, 사회복지사업, 상조회사 등 전문가들과 연대를 통해 계속 보완한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사찰로 모셔와 천도재와 장례를 지내는 방식으로 비용은 합동묘역 안장비인 5만엔(한화 약 51만원)과 화장시설 사용료만을 받으며 부가 비용은 받지 않기로 했다.

아키타 스님은 "사후에 장례가 보증돼 있다는 것으로 마음에 안정을 찾고,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고 싶다"며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의의를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무연고자들을 위한 전용 장례시설로 사용될 법당을 소개하는 아키타 스님. 사진출처=산케이신문

태국, 무슬림 불교 테러 보호조치

사원 보호 · 지역 경계 강화… 물질적 지원도

지난달 태국 최남부 나라티왓주 숭가이 빠이 구역 사원에서 총기테러가 발생해 두 명의 스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태국 당국이 불교사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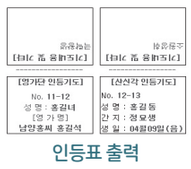
아시안 뉴스는 지난달 18일 오후 랏따나누빱 사원에서 발생한 무장괴한의 총기테러로 인해 이 사원의 주지스님과 그의 제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재 태국 사회는 불교도와 무슬림 사이 긴장감이 팽배하다. 무슬림 집단의 테러로 2004년 이래로 약 7000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이 중에 약 23명이 스님"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총기테러를 벌인 무장괴한들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국 당국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정부와 NOB(National Office of Buddhism)는 불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피해가 빈번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원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슬림과 불교도 간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 공동 행사도 자주 개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95%가 불교도인 태국은 100여 년 전 남부지역을 무력 합병했다. 남부 지역에는 무슬림이 대거 거주한다. 무장 단체 말레이무슬림은 2004년 반란을 시작했으며, 이들의 테러로 현재까지 약 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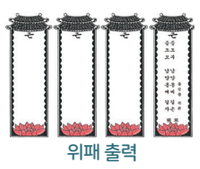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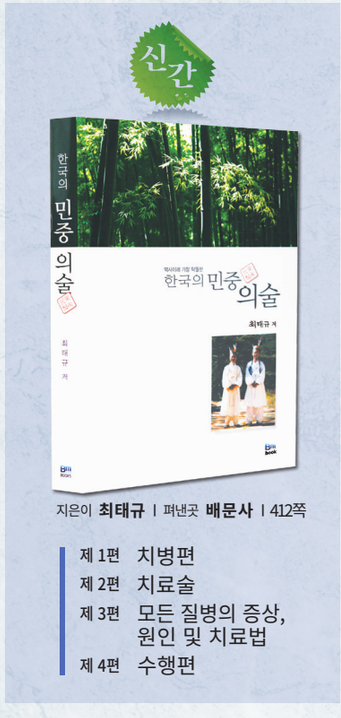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